

외국인 이주자의 생활공간에 관한 연구: 주거·소비·여가공간을 중심으로

이혜경*

요약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초국적 이주가 활발해지고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 이주자는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다학문적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결혼이주자나 이주노동자 등 개별 유형의 일부 적응과정이나 정책에 집중되어 있다. 이들의 국내 적응과정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회제도적 측면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일상 생활활동이 이루어지는 구체적 공간, 즉 생활공간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거주 외국인 이주자들의 적응과정 파악의 일환으로 일상 생활활동이 이루어지는 주거공간, 소비공간, 여가공간의 구체적 생활공간에 대해 고찰하였다. 또한 각각의 하위 분석요소로 외국인 이주자를 결혼이주자, 이주노동자, 전문직 이주자, 외국인 유학생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외국인 이주자의 지역사회 적응과정을 이해하고, 우리사회의 소수 집단으로서 '외국인 이주자'집단이 구체적 공간에서 나타내는 특성에 대해 파악하고자 한다.

주요어 외국인 이주자, 생활공간, 주거공간, 소비공간, 여가공간

1. 서론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초국적 이주가 활발해지고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 이주자는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다학문적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이주자 전체를 대상으로 사회, 정치, 경제, 문화적 측면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거나, 이주자들 중에서도 결혼이주

* 성지여자중학교 인턴교사, 지리학, time46@hanmail.net

자나 이주노동자 등 개별 유형의 일부 적응과정이나 정책에 집중되어 있다. 이들의 국내 적응과정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회제도적 측면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일상 생활활동이 이루어지는 구체적 공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초국가적 이주와 정착, 그리고 다문화적 수용의 문제는 추상적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공간에서 나타난다(박배균, 2010). 특히 외국인 이주자들이 겪는 어려움은 구체적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며, 생활공간에서 이동성의 제약이 발생하면 장소감이나 정체성을 가질 수 없는 불안정한 존재가 될 수 있다(최병두, 2009). 따라서 외국인 이주자들의 국내 적응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 구체적 공간, 즉 생활공간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외국인 이주자들의 생활공간과 관련된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며, 연구의 내용도 국지적 지역에서의 공간적 분화 및 생활 전반의 만족도와 관련된 일부분으로써 구체적 공간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거주 외국인 이주자들의 적응과정 파악의 일환으로 일상 생활활동이 이루어지는 주거공간, 소비공간, 여가공간의 구체적 생활공간에 대해 고찰하였다. 생활공간은 일상 생활활동이라는 측면에서 이주자들의 삶의 모습을 반영한다. 이러한 삶의 모습이 결국 이들의 국내 적응과정으로 귀결되며, 본 연구에서는 일상 생활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적 범위 및 비주기적 활동공간을 생활공간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외국인 이주자들의 생활공간에 관한 선행연구를 파악하고, 주거공간, 소비공간, 여가공간을 구분하여 각각의 하위 분석요소로 결혼이주자, 이주노동자, 전문직 이주자,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사회 적응과정에 관한 실태를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외국인 이주자의 지역사회 적응과정을 이해하고, 우리사회의 소수 집단으로서 '외국인 이주자' 집단이 구체적 공간에서 나타내는 특성에 대해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부분적으로는 외국인 이주자 집단 내에서도 유형별·거주 지역별·국적별로 나타나는 특성에 대해서도 살펴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생활공간에 대한 이해는 향후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변화와 나아갈 방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

대된다.

연구는 설문조사와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된 자료에 근거하였다.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은 200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였고, 설문지역은 6개의 지역(서울, 경기, 대구, 경북, 광주, 전남)으로 나누어 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부수는 총 1,353부(결혼이주자 393부, 이주노동자 346부, 전문직 이주자 256부, 외국인 유학생 358부)이며, 심층면담은 6개의 지역에서 55명에게 실시하였다.

2. 외국인 이주자의 생활공간에 관한 연구동향

외국인 이주자들의 구체적 생활공간으로 주거공간, 소비공간, 여가공간 전체를 고찰한 선행연구는 진행되지 않았으며, 본 연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각각의 세 가지 측면에서 연구동향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 생활공간인 주거공간에 관한 연구이다. 최근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자의 주거환경 관점에서 주거실태와 만족도, 주거권 향상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이 논의되기도 하지만(김영미, 2012; 이지춘, 2012), 결혼이주자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이미 정해진 주거공간에서 한국인들의 생활양식에 편입된다는 점에서 이들의 주거공간과 관련된 연구는 양적으로 미흡하다. 반면, 이주노동자의 주거공간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방면에서 진행되고 있다. 주거지는 인종, 종교, 소득수준 등에 차별을 받아서는 안되지만 이주노동자들은 열악한 주거지에 노출되어 관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에 하성규·고성열(2006)은 경기도 안산시의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들의 주거실태를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최저 주거기준과 비교·분석하였다. 그리고 주거권 보장과 주거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외국인 이주자들의 주거공간은 체류자격·지역·국적별로 차이가 나타나며 일부 지역에서는 주거지 분화 현상이 진행되기도 한다. 즉, 국지적 공간

에서의 소수인종집단 주거지 분화(residential segregation) 현상이 나타난다(손승호, 2008). 또한 연령이나 교육수준에 따라서도 외국인 이주자들의 주거지 특성이 달라지기도 하며, 주거지 선정요인은 거주환경, 통학거리, 주거유형 등의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강민조, 2003). 특히 주거공간의 선정요인으로 직주 간 소요시간은 매우 중요하며 직종의 전문성이나 성별, 국적 등에 따라 직주거리가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류주현, 2009). 최병두(2009)는 이주노동자의 일터와 생활공간에 초점을 두고 이들이 겪는 시공간적 제약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는데, 생활공간은 생존을 위한 공간으로 장소에 대한 뿌리내림은 여러 제약들로 인해 매우 어려운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리고 전문직 이주자들의 주거공간과 관련된 연구로 김호철·김주진(1997)은 대기업 근무자나 외국인투자기업의 파견근무자 또는 외국어학원 근무자 등 전시간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을 주요 대상으로 설정하여 서울시 거주 전문직 이주자의 현재 주거상황과 그들이 선호하는 사항을 파악하였다. 이 밖에도 고급인력의 유치·활용과 관련한 생활적응 지원에 관한 연구(권기현·이홍재, 2005; 김남희 외, 2004)가 있으며, 외국연예인의 한국 생활과 관련한 심층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제안을 한 장미진 외(2002)의 연구도 있다. 최근 연구에서 서울을 국제 비즈니스의 중심 도시로 만들기 위해 글로벌 빌리지로 정한 6곳의 외국인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선호요인이 분석되기도 하였다. 여기에서 공원녹지량, 외국계 투자기업, 외국인 지원시설, 유흥환경, 대사관, 외국인 학교, 소방서 등의 변수가 외국인이 선호하는 거주환경요인으로 분석되었다(한기수, 2011). 또 외국인 유학생들의 주거현황을 파악하고 주거 만족도와 선호 및 요구를 분석하거나(안선민 외, 2006), 경제적 적응과 관련하여 거주, 여가, 소비 생활을 살펴본 리통(2010)의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이 중국인 유학생이라는 제한적인 결과가 나타난다.

둘째, 소비 행위가 일어나는 소비공간에 관한 연구이다. 소비공간은 사회와 문화를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즉, 소비공간이란 백화점이나 상점 등과 같은 판매 공간을 뜻하기도 하며, 이들을 포함한 큰 개념으로

서 소비가 지니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현상들이 보이는 장을 뜻하기도 한다(심송희·최윤경, 2005). 특히 외국인 이주자들은 우리나라의 소비환경이나 본국 물건의 구매에 있어 불편을 겪고 있다. 오아름·유현정(2009)은 민속지학적 면담기법을 이용하여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소비활동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이들의 제한된 소비활동 형성과정을 살펴보았다. 또 김현주(2006)는 수도권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을 표본조사하여 이들의 소비생활 만족도, 생활용품 구입장소 및 선정이유, 지불수단, 물품이나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의 불만족·피해 경험 등을 분석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결혼이주자의 경우 직장이나 유학을 목적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자에 비해 생활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소비생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셋째, 여가활동이 일어나는 여가공간에 관한 연구이다. 주 5일 근무제의 확대 실시, 노동시간의 단축, 삶의 질 향상 추구, 자기 해방, 자기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여가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백정숙·이계희, 2006). 특히 외국인 이주자의 여가 참여는 자신의 원래 문화(original cultural)와 주류 문화(host cultural)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가의 문제와 상황에 따라 적절히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문은희, 2007). 여가활동을 통해 한국문화를 수용하고 사회적 지지망을 형성할 수 있으며 정서적 안정과 지식 및 정보를 습득한다. 여가활동의 참여는 노동자의 경우 직무만족도나 대인관계의 원만함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유학생의 경우 학교 생활의 만족도가 높아지기도 한다(이호승, 2008; 배경호, 2008). 따라서 외국인 이주자들은 여가공간에서의 여가활동 종류나 참여 정도에 따라 직장이나 학교 및 지역사회 적응에 큰 영향을 미치고 정서적 안정에도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여가활동 중 특히 매스미디어의 영향은 외국인 이주자들의 적응 및 그들의 하위문화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허문경·권유홍, 2010).

이렇게 외국인 이주자에게 여가활동은 적응과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각종 제약이 가해지기도 한다. 권유홍·고봉찬(2011)의 연구에서 결

혼이주자는 주로 심리적 내재적 여가제약과 대인적 여가제약, 그리고 구조적 여가제약을 겪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발생원인은 결혼이주자에 대한 한국인의 편견, 출신국가 간 문화적 차이, 한국어 구사능력 등으로 분석하였다. 차성란(2011)의 연구에서도 결혼이주자의 여가는 소범위 공간 활동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반면, 여가활동의 제약이 삶의 만족감 감소와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주연 외(2011)의 연구를 살펴보면 이주노동자들은 본국보다 더 긴 노동시간과 노동강도를 경험하고 있으며 여가의 제약을 많이 느껴 소극적 여가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삶의 만족감 감소의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다. 자신의 현재 노동 및 여가생활의 객관적 조건보다 자신의 노동으로 본국에 있는 가족의 삶의 질 수준이 향상된 것이 삶의 만족감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외국인 이주자들의 주거공간, 소비공간, 여가공간에 대한 선행연구는 이주자 유형별로 구분되어 나타나거나, 전체 외국인 이주자들의 구체적 생활공간을 통합하여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3. 주거공간

1) 주거환경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 안정된 주거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주거공간은 단순히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삶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외국인 이주자들의 주거환경을 살펴보기 위해 주택의 규모, 쾌적성, 주거비용, 주변 환경의 만족도를 조사해보았다. 5점 척도로 분석 시 가장 만족하는 사항은 치안상태 등의 집 주변 환경(3.48)이었고 다음으로 주거비용(3.30), 쾌적성(3.20), 규모(2.99)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의 규모면에서 가장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 외국인 이주자

들은 대체로 주거공간의 규모가 좁다고 인식하고 있었다(표 1). 이는 외국인 이주자의 각 유형별로 만족도를 살펴보아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난다. 특히 이주노동자와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좁은 방에서 3~4명이 함께 생활하는 경우도 많아 주거공간이 규모면에서 비좁게 느껴진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외국인 이주자들에게는 주거환경의 외부적 요인보다는 내부적 요인이 그들의 삶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된다. 전문직 이주자는 3.19~3.76의 만족도 범위를 보이고 있어 4가지 이주자 유형 중 주거환경의 모든 요소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외국인 이주자들이 국내로 유입하여 정착한 거주 지역별로 주거환경을 살펴보았다. 주택의 규모면에서 광주지역은 가장 넓다고(3.21), 서울지역은 가장 좁다고(2.79) 인식하였다. 쾌적성에서는 광주(3.20)와 서울(3.30)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비용면에서의 인식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주변 환경은 서울지역이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것(3.63)으로

표 1. 외국인 이주자의 주거환경 만족도(5점 척도)

		합계	넓은 규모	쾌적성	적당한 비용	좋은 주변환경 (치안상태 등)
전체		3.24	2.99	3.20	3.30	3.48
유형	결혼이주자	3.03	2.90	2.92	3.02	3.27
	이주노동자	3.24	3.04	3.18	3.27	3.46
	전문직이주자	3.55	3.19	3.59	3.66	3.76
	외국인유학생	3.16	2.84	3.11	3.25	3.44
지역	서울	3.24	2.79	3.30	3.23	3.63
	경기	3.12	2.99	2.97	3.18	3.34
	대구	3.21	2.89	3.11	3.27	3.55
	경북	3.16	2.87	3.19	3.13	3.44
	광주	3.26	3.21	3.20	3.32	3.32
	전남	3.16	3.05	3.09	3.23	3.28

주: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
 자료: 설문조사에 의함

나타났다. 따라서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이주자가 주택의 규모는 좁지만 그 외의 주거환경 항목에는 대체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이주자의 각 유형별로 주거환경의 세부항목과 거주지역, 국적을 교차분석 해 본 결과, 결혼이주자나 이주노동자 모두 광주와 전남 지역 거주자, 제3세계 국가에서 이주한 경우 주택의 규모나 쾌적성 면에서 상대적 만족도가 높았다. 일본인 전문직 이주자의 경우 주택의 규모가 넓다고 인식하였고, 비용면에서는 경기와 서울지역 거주자는 불만족을 드러냈다. 특이 점은 광주지역 결혼이주자나 이주노동자의 경우 주택의 쾌적성이나 주변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나, 전문직 이주자의 경우 그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전문직 이주자가 선진국에서 이주한 비율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 만족도가 낮다고 생각된다. 외국인 유학생은 경북과 전남지역이 주택 규모 면에서 넓다고 응답하였고 국적별로는 제3세계, 중국, 선진국의 순으로 나타났다. 쾌적성에서는 전남지역이 가장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만족이 높은 순서는 선진국, 중국, 제3세계이다. 주변 환경은 대구, 서울, 광주지역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있어 대도시가 주변지역보다 주변 환경이 더 나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주거현황

(1) 결혼이주자의 주거현황

결혼이주자의 주거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주택의 유형, 방의 개수 등을 살펴해보았다. 그 결과 단독주택(40.5%)에 사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그 다음으로 아파트(26.5%), 다가구/다세대주택(23.4%) 순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지역 일수록 아파트나 다가구/다세대주택에 주거하는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대도시 주변지역 일수록 단독주택에 주거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국적별로는 도시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은 일본 출신 결혼이주자는 주로 아파트에 주거하며,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은 베트남이나 필리핀, 캄보디아 출신 결혼이주자는 주로 단독주택

에 주거하는 비율이 높았다. 방의 개수는 대부분 2~3개인데 지역적으로 서울과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자의 경우 방의 개수가 1개인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서울지역의 주택 규모가 가장 좁다고 응답한 결과와 상통한다.

(2) 이주노동자와 전문직 이주자의 주거현황

이주노동자와 전문직 이주자의 경우 결혼이주자처럼 이미 정해진 주거공간에서 한국인들의 생활양식에 편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의 유형보다는 주거 형태를 파악하였다. 주거 형태를 비교해 보면 이주노동자는 회사 기숙사(44.2%)에 주거하는 비율이 높으며, 전문직 이주자는 회사 주선 주택(46.1%)에 주거하는 비율이 높다. 그리고 본인이 마련한 주택에 주거하는 비율은 두 이주자 유형 모두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표 2). 특히 이주노동자의 경우 회사 기숙사에 주거하면 숙식비 등의 비용이 감소하고, 고용주의 입장에서 통제·관리가 용이하기 때문에 회사 기숙사에 주거하는 비율이 높다. 그러나 전문직 이주자의 경우 약간의 주거비용이 추가되더라도 회사 기숙사의 통제된 관리보다는 회사에서 주선한 사외 주택을 선호한다.

서울지역 이주노동자는 본인이 마련한 주택에 주거하는 경우가 회사의 주거 지원을 받는 경우보다 2배 이상 높다. 특히 중국인들은 본인이 마련한 주택에 주거하고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경기, 대구, 광주지역의 경우 회사 기숙사와 본인 마련 주택이 거의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경북과 전남지역은 회사 기숙사에 주거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월등히 많았다. 이는 대도시 주변지역 일수록 주택 공급량이 적어 이주노동자들이 주거지를 쉽게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며,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동에 불편함이 따르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된다. 또 비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방문취업(H-2)¹을 제외하면 회사 기숙사나 회사에서 주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 동포에 해당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만 25세 이상인 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재외동포(F-4) 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표 2. 이주노동자와 전문직 이주자의 주거 형태

(단위: 명, %)

		합계	회사 기숙사	회사 주 선 주택	본인 마 련 주택	동료와함께 마련한주택	친구나 친척집	기타	무응답
이주노동자(명)		346	153	54	105		19	14	1
구성비(%)		100.0	44.2	15.6	30.3		5.5	4.0	0.3
지역	서울	34	11.8	8.8	47.1		14.7	17.6	0.0
	경기	61	34.4	14.8	37.7		8.2	3.3	1.6
	대구	72	40.3	6.9	41.7		5.6	5.6	0.0
	경북	70	45.7	24.3	24.3		2.9	2.9	0.0
	광주	45	37.8	26.7	31.1		4.4	0.0	0.0
	전남	64	78.1	12.5	7.8		1.6	0.0	0.0
전문직이주(명)		256	46	118	73	7	3	8	1
구성비(%)		100.0	18.0	46.1	28.5	2.7	1.2	3.1	0.4
지역	서울	98	9.2	54.1	30.6	3.1	2.0	1.0	0.0
	경기	34	0.0	55.9	32.4	8.8	2.9	0.0	0.0
	대구	46	6.5	67.4	21.7	2.2	0.0	2.2	0.0
	경북	23	52.2	26.1	13.0	0.0	0.0	4.3	4.3
	광주	35	57.1	5.7	34.3	0.0	0.0	2.9	0.0
	전남	20	10.0	35.0	35.0	0.0	0.0	20.0	0.0

주: 이주노동자는 '동료와 함께 마련한 주택'을 선택하는 보기가 없음

자료: 설문조사에 의함

선한 주택에 주거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은 반면, 방문취업(H-2)에 해당하는 이주노동자들의 51%는 본인이 마련한 주택에 주거하고 있었다. 이들은 외국 국적 동포에 해당하므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주거 형태를 보이고 있는 듯하다. 이주노동자의 주택 점유 형태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2002)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무상제공이 54.3%로 나타난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무상제공에 해당하는 회사 기숙사와 회사 주선 주택의 주거는 59.8%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따라서 우리나라 이주노동자의 절반 이상은 무상제공에 해당되는 주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단, 미등록 노동

1)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로서 대한민국 호적(제적)에 등재되어 있는 자 및 그 직계 비속

자의 경우 본인이 직접 주거공간을 마련하는 비율이 높다.

다음으로 전문직 이주자는 교수(E-1)², 경북과 광주지역 거주자가 회사 기숙사에 주거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본인이 마련한 주택에 주거하는 경우는 영국인, 특정활동(E-7)³이나 기업투자(D-8)⁴자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남희(2004)의 연구에서도 전문직 이주자들은 고용기관에서 제공하는 직원 사택에 절반 이상(53.3%)이 주거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주택비를 보조받아 주거지를 마련(21.3%)하는 경우가 많았다. 어떤 형태로든 직장으로부터 주택관련 보조를 받는 경우가 74.6%이다. 본 연구에서도 회사 기숙사와 회사 주선 주택을 포함하여 전문직 이주자의 64.1%가 주거지를 제공받고 있었다. 오히려 이주노동자보다 전문직 이주자들이 주택관련 보조를 받는 경우가 조금 더 많았으며, 이는 기업의 복리후생제도가 전문직 이주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으로 주어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3) 외국인 유학생의 주거현황

외국인 유학생의 주거 형태는 학교 기숙사가 66.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자취(21.2%), 고시원(4.5%), 친구나 친척집(3.4%) 등의 순

-
- 2)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인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자
 -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에 해당하거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에 해당하는 자
 - 4)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증진에 기여한 자
 - 5) 유학(D-2) 자격으로 1학기 이상 재학 중인 자의 부·모 및 배우자
 - 6) 국내 외국인의 체류질서 유지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진하여 출국한 자
 - 7) 1) 내지 6)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국어 시험, 추천 등의 절차에 의하여 선정된 자
 - 2) 고등교육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전문대학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전문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지도 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개정 2002.4.18>
 - 3) 대한민국내의 공·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특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 4)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국내에서 채용하는 자는 제외><개정 2002.4.18, 2003.9.1>

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과 대구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자취의 비율이 각각 40% 이상으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이들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학교 기숙사 주거 비율이 65%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전남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학교 기숙사에 주거하는 비율은 96.6%로 매우 높았는데, 이는 지역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대학의 경우 신입생 모집이 상대적으로 원활하기 때문에 학생 미달 혹은 미충원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지방 소재 대학들보다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에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이다(안영진, 2011).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인 유학생의 학교 기숙사 주거 비율이 70.3%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학교 기숙사에 주거하는 비율이 높은 경북과 전남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은 중국인 유학생이 분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입국연도가 길어질수록 자취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특징으로는 한국어 구사 능력이 높은 학생일수록 학교나 지원기관의 도움 없이 주거지를 혼자 구하는 경향이 드러났다.

3) 주거지 선정

(1) 주거지 선정요인

외국인 이주자들이 주거지를 선정하는 요인을 분석해보면 크게 거리적 요인(40.0%), 주거비용(29.2%), 주변 환경(12.6%), 사회적 관계(10.9%), 기타(5.3%)의 순으로 중요하게 나타났다. 각각의 하위 항목을 구분해 보면 직장(또는 학교)과의 근접성(34.0%)이 가장 높은 주거지 선정의 요인이었으며, 그 다음이 저렴한 주거비(16.0%)로 확인되었다(표 3). 외국인 이주자들은 이동의 제약성이 많기 때문에 거리적 요인이 주거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외국인 이주자의 유형별로 주거지 선정의 이유를 살펴보면 이주노동자는 직장에서 알선(39.6%), 저렴한 주거비(24.0%), 직장과 근접성(17.1%) 등의

표 3. 외국인 이주자의 주거지 선정요인

(단위: 명, %)

	합계	주거 비용		거리		주변 환경			사회적 관계				기타	무응답
		직장에서 알선	저렴한 주거비	직장과 근접성	교통의 편리성	쾌적 성 및 편의 시설	안전 성(범 죄 등)	쇼핑/ 여가 장소 근접	친구, 친척 과 근 접	종교, 자원 단체 주변	이주자 밀집 지역	자녀 교육		
전체(명)	960	137	161	329	46	110	6	3	34	9	57	3	45	20
구성비(%)	100.0	13.2	16.0	34.0	6.0	11.5	0.8	0.4	3.3	0.9	6.4	0.4	5.3	2.0
이주 노동자	346	39.6	24.0	17.1	0.0	0.0	0.0	0.0	9.8	2.6	0.0	0.0	4.3	2.6
전문직 이주자	256	0.0	7.8	32.8	18.0	12.9	2.3	1.2	0.0	0.0	11.3	1.2	11.7	0.8
외국인 유학생	358	0.0	16.2	52.0	0.0	21.5	0.0	0.0	0.0	0.0	7.8	0.0	0.0	2.5

주: 외국인 이주자에서 결혼이주자는 제외(결혼이주자는 주거지 선정의 요인을 묻는 문항이 없음)

자료: 설문조사에 의함

순을 보인다. 이주노동자는 다른 이주자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과 생활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저렴한 주거비용과 관련된 선택이 많은 것으로 이해된다. 입국연도별로 살펴보면, 체류기간이 짧을수록 직장에서 알선한 주거지에 주거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그 기간이 길수록 본인이 마련하여 주거지를 선정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연령 또한 많아질수록 체류기간과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전문직 이주자는 직장과의 지리적 근접성(32.8%), 교통의 편리성(18.0%), 쾌적한 환경 및 주변 편의시설(12.9%)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거리적 요인과 쾌적하고 편리한 주변 환경이 주거지 선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특히 저렴한 주거비 때문에 주거지를 선택한다는 비율은 7.8%에 그쳐 이주노동자와 다른 결과를 보였다. 그리고 이주자들의 밀집지역이라 주거지를 선택한다는 응답은 일본인에게서 높게 나타났으며, 무역경영(D-9)⁵이나 전문직업(E-5)⁶의 비자유형을 가진 이

5 대한민국에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경영하거나 무역 기타 영리사업을 위한 활동을 하려는 자로서 필수전문인력에 해당하는 자(수입기계등의 설치, 보수, 조선 및 산업설비제작 감독등을 위하여

주자들은 쾌적한 환경 및 주변 편의시설을 가장 우선시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인 유학생의 현재 주거지 선정 이유로는 학교/학원과 가까운 거리(52.0%), 깨끗하고 편리한 주거환경(21.5%), 저렴한 주거비(16.2%)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따라서 이들도 전문직 이주자와 마찬가지로 지리적 거리나 주변 환경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주와 전남지역이 타 지역보다 학교/학원과 가까운 거리를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특징으로 제3세계 국가에서 이주한 외국인 유학생은 저렴한 주거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였다. 이들은 주거형태도 기숙사(61.6%), 자취(23.2%) 순으로 나타나는데 주요 이유가 저렴한 주거비 때문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필리핀 국적 유학생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경제적 발전수준이 낮은 국가에서 이주한 외국인 유학생들은 주거지를 선정함에 있어 주거비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직주 간 이동 소요시간

직주 간 이동 소요시간을 살펴본다는 것은 일상적인 이동 거리 및 공간적 범위를 파악하는 데 중요하다. 주거지에서 직장(또는 학교)까지의 소요시간을 알아본 결과, 외국인 이주자들은 도보로 10분 미만, 소요시간 없다, 도보로 10~20분의 순으로 나타나 대체로 직주 간 거리가 근접해 있으며 도보로 이동하고 있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로 회사나 학교의 기숙사와 회사 주선 주택에 주거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직주 간 거리가 매우 근접하여 소요시간이 짧은 것으로 보인다.

이주노동자의 경우 대체로 이동 소요시간이 짧지만 수도권인 서울과 경기 지역은 차량으로 출근(20분 이상)하는 경우가 타 지역보다 월등히 높았다. 국적별로는 중국과 필리핀 이주노동자의 직주거리가 길었고, 방문취업(H-2)

대한민국내의 공·사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하되, 국내에서 채용하는 자와 기업투자(D-8)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 6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인정된 외국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기타 국가공인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법률, 회계, 의료등의 전문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교수(E-1)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은 차량 30분 이상이 34.7%나 된다. 그리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직주거리가 길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방문취업자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직주거리가 길어지는 양상은 주거 형태에 있어 회사 기숙사의 비율보다 본인이 마련한 주택에서 주거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전문직 이주자의 직주 간 소요시간은 도보로 10~30분(31.6%), 도보로 10분 미만(21.5%), 차량으로 20~30분(16.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주노동자보다는 소요시간이 더 길고, 서울과 대구지역은 차량으로 1시간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비자유형별로 살펴보면 예술흥행(E-6)⁷의 경우 대부분 회사 기숙사 등의 주거로 인해 소요시간이 없다(66.7%)고 응답한 비율이 매우 높았다. 외국인 유학생의 등교 시 소요시간은 학교 내 기숙사에 주거하는 학생의 비율이 높은 만큼 소요시간 없다(36.3%), 도보 10분 미만(29.9%), 도보로 10~20분(22.9%)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그리고 서울지역은 차량으로 30분 이상 걸린다는 응답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앞서 주거 형태에서도 파악하였듯이 학교 기숙사보다 자취의 비율이 더 높기 때문이다.

이렇듯 직주 간 소요시간을 통해 이들의 일상적인 공간적 이동 범위를 파악해보면 전문직 이주자가 가장 넓고 다음으로 이주노동자, 외국인 유학생의 순이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지리적 지식도 전문직 이주자가 가장 많이 획득했을 것이라 여겨진다.

(3) 월 평균 주거비

외국인 이주자들의 월 평균 주거비는 직장(또는 학교)에서 전액 제공, 20~30만원, 10~20만원 정도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주노동자와 전문직 이주자는 직장에서 주거비를 전액 제공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주거비 지출은 전문직 이주자가 훨씬 많게 나타났다(표 4).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전액 제공받는 비율보다 10~30만원 정도 지출하는 비율이 높았다. 전반적으로 서울지역 거주자는 타 지역보다 주거비 지출이 월등히 높게 나타

7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패션모델 기타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

표 4. 외국인 이주자의 월 평균 주거비

(단위: 명, %)

	합계	전액 제공	10만원 미만	10~20 만원	20~30 만원	30~50 만원	50만원 이상	무응답
이주노동자	346	27.5	18.2	24.0	19.9	8.1	0.0	2.3
전문직이주자	256	33.2	22.3		20.7		21.1	2.7
외국인유학생	358	10.3	10.3	39.1	24.6	14.8	0.0	0.8

주: 전문직 이주자는 주거비 등급을 달리하여 설문지를 작성했으나 다른 이주자 유형과의 비교를 위해 표 분석 시 등급을 맞춤

자료: 설문조사에 의함

났다. 또한 중국인 이주노동자, 미국인 전문직 이주자, 선진국이나 중국인 유학생들이 주거비 지출이 많았으며, 특히 이주노동자는 체류기간이 길수록, 연령이 많을수록 주거비가 증가하는 경향이 드러났다.

중소기업중앙회(2009)의 자료에 따르면 회사가 기숙사나 일반주택을 소유한 경우 그렇지 않을때보다 이주노동자의 월 평균 숙박비는 적게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들은 회사 소유 숙박시설을 활용할 경우 그렇지 않을 때보다 평균비용이 더 적게 지출되었다. 따라서 이주노동자나 회사 양측 모두 회사 기숙사를 활용할 경우 비용은 적게 들며, 회사측은 회사 기숙사를 활용하면 비용도 절감하고 통제·관리도 용이하다는 이점을 가진다.

- 외국인근로자 숙식비 한 달 25만원~31만원 -

중소기업들이 외국인 근로자 한 명에 지출하는 숙식비가 한 달 최소 25만원을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연구용역 기관에 의뢰, 지난해 11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350개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체 숙박시설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1인당 숙식비는 평균 30만 6천원으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기숙사 등 회사 소유 숙박시설을 활용하는 업체들의 평균 비용은 이보다 적은 24만 5천원으로 조사됐다.

(이투데이, 2009.03.17)

4) 주거지 이전 경험

한국으로 이주 후 주거지 이전 횟수는 외국인 이주자들 전체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51.4%였고, 1번(19.4%), 2번(14.3%), 3번(7.9%), 4번 이상(5.3%)의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1). 지역별로는 전남과 광주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주거지 이전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4번 이상의 빈번한 이동은 경북, 대구, 서울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이주자는 대구나 전남지역의 경우 3번 이상 이전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특히 일본인 결혼이주자가 다른 국적에 비해 월등히 이전 횟수가 많았고, 학력이 높을수록 이전 횟수가 많아지는 경향이 드러났다. 이주노동자는 전남과 광주지역이 이전하지 않았다는 비율이 높으며, 인도네시아인은 타 국적보다 주거지 이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체류기간이 길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이전 횟수 또한 많아지고 있었다. 전문직 이주자는 국적별로는 영국과 캐나다인, 비자유형별로는 기업투자(D-8)자나 특정활동(E-7)의 경우 상대적으로 이전 횟수는 높게 나타났다. 이들은 앞서 본인이 마련한 주택에 주거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전문직 이주자의 국적과 비자유형에 해당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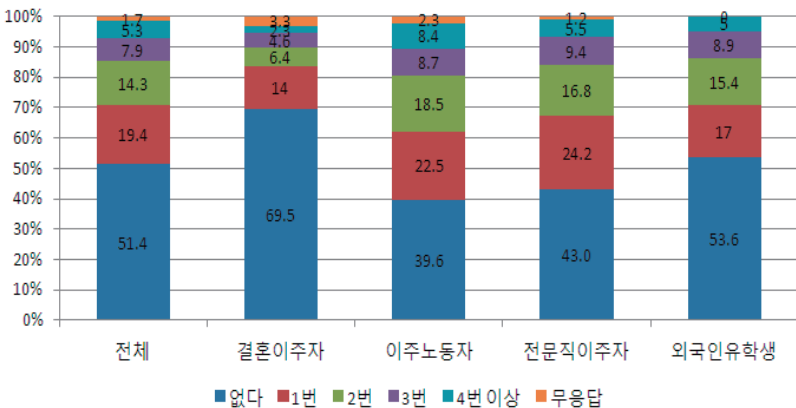


그림 1. 외국인 이주자의 이주 후 주거지 이전 횟수

자료: 설문조사에 의한

다.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대구지역에 있는 유학생들은 이전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비율이 18.2%로 타 지역보다 낮아, 많은 학생들이 이전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대구지역 외국인 유학생이 자취의 비율이 높은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절대적 수치는 아니지만 역시 체류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전 횟수도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따라서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이주자들 중에서도 이주자 유형별로 주거지 이전의 차이를 드러내며 대체로 체류기간이 길수록 이전의 횟수도 증가하였다. 또한 기숙사보다 본인이 마련한 주택에서 주거할 경우 그 횟수도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외국인 이주자들은 비교적 넓지 않은 주거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회사(또는 학교)에서의 주거공간 지원은 이들의 초기 정착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거주목적, 적응과정에 따라 주거지 선정이 달라지기도 하며, 주거지 형태나 이전 횟수의 차이도 발생한다.

4. 소비공간

외국인 이주자들은 본국과 한국의 소비환경 차이와 언어소통의 곤란 등으로 인하여 소비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김현주, 2006).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소비생활 자체의 어려움보다는 외국인 이주자들의 거주지역이나 거주목적 등에 따라서 달라지는 소비공간을 고찰하였다. 소비공간은 소비생활을 통해 언어실력 향상뿐만 아니라 문화를 이해하고 적응해나가는 데 적극적인 공간으로 이해된다.

1) 월 평균 생활비

외국인 이주자들의 월 평균 생활비를 살펴보면, 10~30만원 미만이 가장

많고, 30~50만원 미만, 50~100만원 미만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주자 유형별로는 이주노동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생활비를 지출하고 전문직 이주자는 다른 이주자 유형에 비해 많은 생활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이주노동자는 1인 가구 최저생계비⁸에 미치지 못하는 생활을 하고 있으며, 임금 증가율도 내국인에 비해 적다. 전문직 이주자가 월 평균 생활비 100만원 이상 지출하는 경우는 다른 이주자 세 유형의 합 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국적별로는 기타를 제외하면 미국, 일본, 영국인들의 생활비 지출이 많았다. 필리핀 국적 예술홍행(E-6)의 경우 월 10만원 미만의 적은 생활비를 지출하고 있었으며, 기업투자(D-8), 상사주재(D-7)⁹, 무역경영(D-9)의 비자를 가진 전문직 이주자는 많은 생활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도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는데 서울과 경기지역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가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대구지역은 1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도 많이 나타났다. 이는 대구지역에서 예술홍행(E-6)의 비자를 가진 이주자의 설문 응답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결국 전문직 이주자의 경우 비자유형이나 국적에 따라 생활비 지출의 차이가 크게 드러났다. 그리고 연 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월 평균 생활비도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외국인 유학생도 서울지역의 유학생이 타 지역 유학생들보다 전반적으로 많은 생활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100만원 이상 고액의 생활비를 지출하는 유학생들은 선진국, 중국, 제3세계 국가의 순이었다. 즉, 전문직 이주자,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 거주자, 선진국에서 이주한 외국인들이 월 평균 생활비 지출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이점은 결혼이주자의 경우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 거주자가 생활비 지출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생활비가 1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결혼

8 보건복지부, 2012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 553,354원

9 외국의 공공기관·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 지사, 그 밖의 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지사, 자회사, 주재사무소 등에 필수 전문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려는 자(다만, 기업투자(D-8) 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며, 국가기간산업 또는 국책사업에 종사하려는 경우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근무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개정 2007.2.28>

이주자는 도시적 성격이 강한 서울과 대구지역에서 각각 10.0%, 16.2%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농촌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자들 보다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 결혼이주자 가정이 경제적으로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내포한다. 따라서 100만원 이상 지출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대도시보다 대도시 주변지역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월 평균 생활비를 지출하는 결혼이주자의 국적은 일본인으로 나타났다.

2) 생필품 구매

(1) 생필품 구매 빈도

일상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생필품 구매 빈도를 조사한 결과, 1주일에 한 번(41.9%) 정도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그림 2). 대체로 지역별로 비슷하지만 상대적으로 광주와 전남지역은 매일 구매한다는 비중이 적고 한 달에 한 번 구매한다는 비율이 높았다.

결혼이주자는 생필품 구매를 위해 일주일에 1~2번 정도 이동하는데, 서울거주 결혼이주자들의 경우에는 응답자의 40.0%가 거의 매일 생필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가장 비도시적 성격이 강한 전남의 경우에는 그 빈도가 적었으며 특히 한 달에 한 번(11.1%)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3배 가량 높은 것으로 보아 접근성의 차이로 인한 결과로 사료된다. 필리핀 국적의 예술홍행(E-6)의 비자를 가진 이주자의 경우 한 달에 한 번 외출한다는 응답이 높아 이들이 생필품 구입을 위해서 외출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예술홍행(E-6)의 경우 회사주선 주택에 살고 있고 숙식이 제공되므로 생필품 구입의 필요성이 적은 것으로 볼 수 있다.

4가지 이주자 유형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지역별로는 광주와 전남지역이 주요 생필품 구매 빈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근거리 이동 역시 광주와 전남 지역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개별 이주자 유형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이 아니므로 다른 요인보다는 접근성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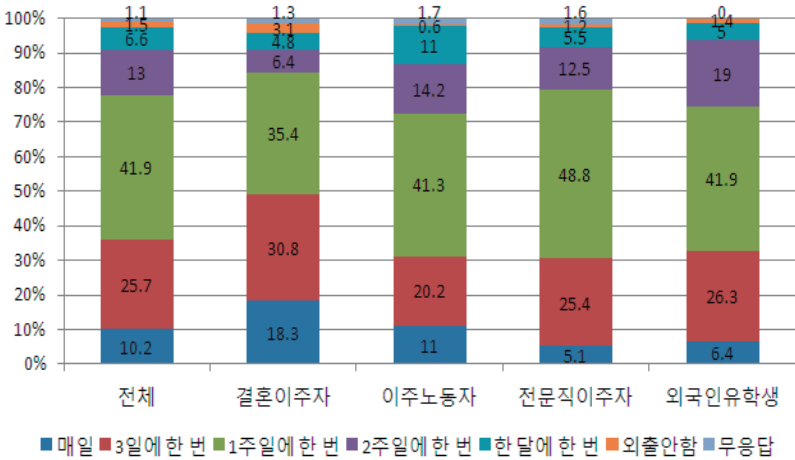


그림 2. 외국인 이주자의 주요 생필품 구매 빈도

자료: 설문조사에 의함

겨진다.

(2) 생필품 구매 장소

외국인 이주자들의 주요 생필품 구매 장소는 집 주변 슈퍼(39.2%)와 대형마트(33.9%)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여 지리적 근접성과 상품의 다양성이 주요 구매 요인이라 판단된다(표 5). 하지만 이는 외국인 이주자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성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경북지역의 외국인 이주자는 집 주변 슈퍼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전남지역은 대형마트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는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낯선 환경에서도 이주자들이 접근하기에 용이하다는 장점을 지닌다.

결혼이주자나 이주노동자는 집 주변 슈퍼의 이용률이 높고 그 다음으로 대형마트, 재래시장을 주로 이용하고, 전문직 이주자나 외국인 유학생은 대형마트의 이용률이 높고 그 다음으로 집 주변 슈퍼를 주로 이용하며 재래시장의 이용률은 낮다. 연령이 낮은 이주노동자일수록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비율이 조금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방문취업(H-2) 비자를 가진 이주노동자

표 5. 외국인 이주자의 주요 생필품 구매 장소

(단위: 명, %)

	합계	집 주변 슈퍼	구내 매점	재래 시장	대형 마트	백화점	인터넷 쇼핑몰	기타	무응답
전체(명)	1,353	539	105	169	437	53	18	14	18
구성비(%)	100.0	39.2	7.6	11.7	33.9	3.9	1.3	1.0	1.4
결혼이주자	393	41.0	2.3	22.9	25.7	3.8	1.8	1.3	1.3
이주노동자	346	50.6	6.9	15.9	19.7	2.3	0.9	1.2	2.6
전문직이주자	256	30.5	4.3	4.3	54.7	3.5	1.2	0.0	1.6
외국인유학생	358	34.9	17.0	3.6	35.8	5.9	1.4	1.4	0.0

자료: 설문조사에 의함

일수록 집 주변 슈퍼의 이용 비중이 높았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비자유형에 비해 기숙사나 회사 주선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구내 매점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았다. 일본인 전문직 이주자들은 집 주변 슈퍼를 이용하는 비중이 9.1%로 낮게 나타났고, 전문직업(E-5)이나 예술행행(E-6)의 경우 백화점 이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결혼이주자와 이주노동자는 소비공간에서의 이동 거리가 짧으며, 전문직 이주자나 외국인 유학생은 그 이동 거리가 길다고 보여진다. 또한 앞서 광주와 전남 지역의 경우 생필품 구매 빈도가 타 지역에 비해 낮았는데 구매 장소의 조사 결과 대형마트가 많다는 점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광주와 전남에 거주하는 외국인 이주자의 경우 주로 대형마트로 이동하는 비율이 높으므로 지리적 거리가 증가하게 되고 그에 따라 구매 빈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광주와 전남에 거주하는 외국인 이주자들은 소비공간에서 지리적 거리의 중요성보다 상품의 다양성이 주요 구매 요인으로 작용한다. 결국 소비공간의 범위는 전문직 이주자와 외국인 유학생이, 그리고 광주와 전남지역 거주자일수록 넓어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3) 본국물건 구매

(1) 본국물건 구매 여부

외국인 이주자들은 한국사회에 적응하면서 대부분 한국의 음식 및 물품을 사용하고 있지만, 본국물건의 필요성을 느낄 때가 있다. 주로 본국의 식료품 및 각종 생필품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에스닉 상점은 물건의 구매뿐만 아니라 그들만의 커뮤니티(community)를 형성하고 본국의 소식을 확인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본국물건의 구매와 관련하여 외국인 이주자 전체 중 62.9%가 구매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4가지 이주자 유형 모두 구매 경험은 60% 전후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도 대체로 그러하지만 광주지역은 구매 경험이 없는 경우가 훨씬 높아, 본국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곳이 가깝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그림 3). 이는 생필품을 구매하기 위한 지리적 범위보다 본국물건을 구매하기 위한 지리적 범위가 특정지역에서 더 멀리 나타나고 있음을 예측해볼 수 있다.

광주지역의 결혼이주자와 이주노동자는 타 지역 거주자에 비해 본국 물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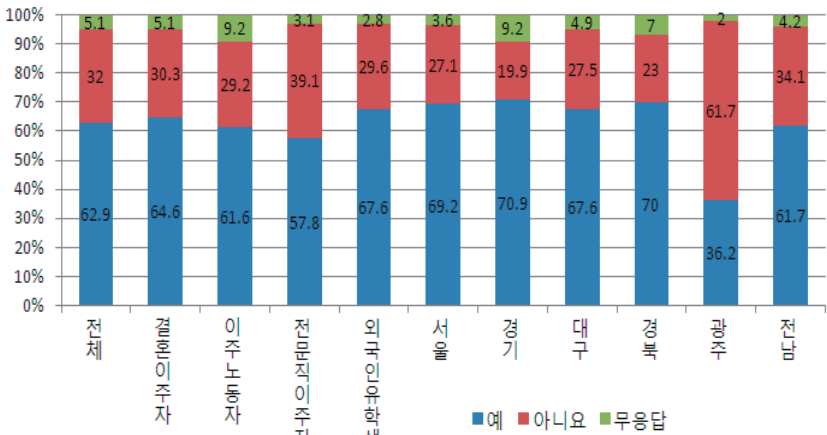


그림 3. 한국에서 본국물건 구매 경험

자료: 설문조사에 의한

구매 경험이 없는 경우가 더 많았고, 국적별로는 중국인들이 구매 경험이 있는 경우가 타 국적에 비해 높았다. 그리고 이주노동자의 연령대는 60세 이상이 본국 물건의 구매 경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연령이 높을수록 본국 물건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전문직 이주자는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구매 경험이 없는 비율이 높았고, 특히 러시아, 일본, 인도 등의 국적을 가진 이주자들이 본국 물건을 구매하는 비중이 높았다. 외국인 유학생도 역시 광주지역 거주자는 구매 경험 비율이 낮았고, 특히 제3세계 국가의 유학생보다 중국인 유학생의 대부분(84.7%)이 본국의 물건을 구매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외국인 이주자들은 대체로 한국에서 본국물건을 구매한 경험이 많이 있고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가 그러했지만, 광주는 그 비중이 낮았다. 그리고 중국의 물건을 구하기가 가장 쉬운 것으로 보인다.

에스닉 상점 등에서의 본국물건 구매는 단순한 소비활동을 넘어 그들만의 커뮤니티를 형성함으로써 본국과 한국문화를 소통시켜주는 역할로 이어질 수도 있다. 또한 새로운 사회공간을 형성하여 그들의 삶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장소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광주지역은 외국인 이주자들의 본국 소식을 직·간접적으로 접하는 공간이 적을 것이며, 소비공간에서 새로운 사회공간을 형성하기에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2) 본국물건 구매 장소까지의 소요시간

외국인 이주자들이 본국물건을 구매하기 위한 구매 장소까지의 이동 소요 시간을 살펴본 결과, 차량으로 10~30분(20.5%), 30분~1시간(19.6%), 10분 미만(12.3%)의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4). 특히 이주노동자와 외국인 유학생은 10분 미만이라는 응답도 상대적으로 많아 이들은 가까운 곳에서 본국물건을 구매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대구지역이 소요시간이 짧아 이들 지역은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 에스닉 상점의 분포가 많은 것으로 보여진다.

결혼이주자의 경우 본국물건 구매 장소까지의 소요시간은 보통 1시간 미만이 많았으나, 대도시 지역일수록 소요시간이 짧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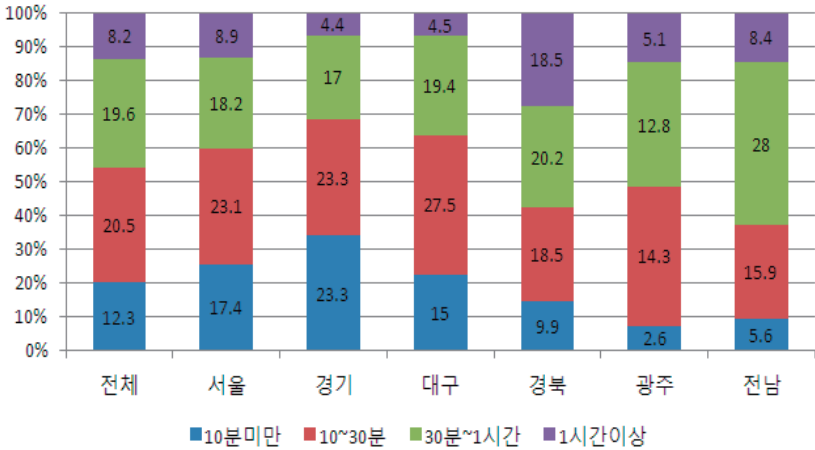


그림 4. 본국물건 구매 장소까지의 소요시간

주: 무응답 제외(본국물건 구매 경험이 있는 응답자만 해당됨)

자료: 설문조사에 의한

그리고 일본이나 중국 물건이 주로 가까운 곳에서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주노동자도 대체로 소요시간이 1시간 미만이었으며, 서울의 경우 38.2%가 10분 이내로 나타나 이주자들의 밀집지역에 에스닉 상점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인도네시아나 중국 물건은 가까운 곳에서 구매할 수 있지만 스리랑카인의 경우 소요시간 1시간 이상이 36.4%나 되어 본국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상점과의 거리가 먼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유학생의 본국물건 구매 장소까지의 소요시간은 선진국, 중국, 제3세계의 순으로 짧게 나타났다. 따라서 선진국의 물건은 한국에서 비교적 구하기가 쉬우며 제3세계 국가의 물건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본국물건을 구매하는 장소까지 소요시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각 지역마다 가까운 곳에 에스닉 상점이 분포하고 있으리라 여겨진다. 이는 대도시에 보다 집중해 있으며 중국이나 일본 물건은 구매가 쉬운 것으로 나타나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한 결과로 해석된다.

5. 여가공간

여가활동의 참여는 업무 및 대인관계, 그리고 생활 만족도를 높여준다. 이것은 곧 가정, 직장,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 적응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외국인 이주자들은 여가공간에서 한국문화를 수용하고 사회적 지지망을 형성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여가시간에 실내·실외에서 하는 활동 및 타 지역 방문을 살펴봄으로써 여가공간의 범위를 파악하고 이들의 이동성을 파악해 보았다.

1) 여가시간

외국인 이주자들의 일주일 평균 여가시간은 5~10시간(23.2%)이 가장 많고, 10~20시간(22.0%)이 그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광주와 전남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이주자가 여가시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주자는 여가시간이 보통 5~10시간(24.7%)이나 5시간 미만(19.6%)으로 나타나고 있어 약간 부족함을 알 수 있다. 가정 내에서 결혼이주자들의 역할이 다양하기 때문에 보여지며 결혼이주자를 위한 각종 지원을 통해 여가시간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는 한국어의 습득이나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이기도 하며 결혼이주자가 주체적 인간으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한 시간이기도 하다. 이주노동자들은 여가시간이 거의 없거나(23.4%) 5~10시간(23.1%), 5시간 미만(21.4%)이 많은 응답을 차지하여 결혼이주자와 마찬가지로 여가시간이 매우 적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전문직 이주자들은 10~20시간(37.9%), 5~10시간(25.0%), 20~30시간(15.6%) 순으로 나타나 대체로 일주일 평균 여가시간이 다른 이주자 유형에 비해 풍족한 것으로 보인다. 또 회화지도(E-2)¹⁰나 교수(E-1)의 경우 다

10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부설 어학연수원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른 전문직 이주자의 비자유형에 비해 여가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국적별로는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영국인이 여가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회화지도(E-2)의 국적이 주로 이러한 영어권 국가들이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전문직 이주자의 다른 비자유형에 비해 예술홍행(E-6)은 여가시간이 거의 없거나 20~30시간이라는 응답이 동일하게 33.3%를 차지하였다. 즉, 여가시간이 양분되는 패턴이 나타나며, 여가시간이 거의 없다고 응답한 비중은 전문직 이주자내의 다른 비자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예술홍행(E-6) 비자유형의 여가시간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의 장미진 외(2002)의 연구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Q: 하루 일과는?

A: 새벽 두 시에 일이 끝나고 숙소로 돌아오면 3~4시가 된다. 새벽에 잠자리에 들어서 오후에 일어나 준비하고 조금 쉬다가 클럽으로 간다. 일하는 날에는 일상이 매일 똑같이 특별한 일은 없다.

Q: 일주일 중 쉬는 날은?

A: 일주일 단위로 쉬지는 못한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쉬는 날이 있다.

(필리핀, 여 33세, 가수(장미진 외, 2002))

외국인 유학생들도 일주일 평균 여가시간이 10~20시간(23.5%), 30시간 이상(21.2%), 5~10시간(20.1%)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기 때문에 전문직 이주자와 외국인 유학생은 대체로 여가시간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여가시간이 많다는 것은 각종 제약이 적은 것으로 생각되고 여가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및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나아가 이들의 삶의 정체성 과도 결부시킬 수 있다.

2) 실내 여가활동

여가시간에 실내에서 하는 활동은 무엇인지 다중응답을 실시한 결과 외국

인 이주자 전체는 인터넷과 TV시청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어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매체를 통해 여가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이러한 매스미디어는 이들이 가장 쉽게 접하면서도 그 영향력은 외국인 이주자들의 적응 및 하위문화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또한 구체적 생활공간에서 직접 대면접촉이 아닌 간접접촉을 통해 한국문화를 수용하고 한국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독서나 공부, 청소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종교 활동의 경우 경기와 대구지역이 조금 높게 나타났다.

이주자 유형별로 구분해보면 결혼이주자들은 TV시청이나 청소가 높게 나타났다고 이주노동자들도 역시 이러한 순서였지만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종교 활동의 비중이 높았다. 이러한 이주노동자의 종교활동은 대구지역 거주자, 중국이나 필리핀인, 기독교인 경우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이 낮을수록 인터넷의 이용도는 높게 나타났다. 전문직 이주자들은 차례대로 인터넷, TV시청, 독서나 공부의 순으로 나타났고, 인터넷 이용은 무역경영(D-9), 독서나 공부는 교수(E-1)가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외국인 유학생들도 인터넷, 독서나 공부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교육과정이 높아질수록(어학연수-학사과정-석사과정-박사과정) 실내 여가활동으로 독서나 공부를 한다는 비중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대체로 고학력인 전문직 이주자들과 외국인 유학생들은 다른 이

표 6. 실내에서 하는 여가활동의 종류

(단위: 명, %)

	TV 시청	요리	청소	인터넷	독서나 공부	종교활동	기타
전체(명)	554	295	398	561	419	136	180
구성비(%)	41.5	22.0	28.7	42.6	31.9	10.3	13.9
결혼이주자	45.5	28.8	45.3	26.2	26.0	6.4	8.4
이주노동자	59.0	23.0	28.6	25.1	12.1	20.9	11.8
전문직이주자	43.3	24.0	22.4	51.6	42.9	9.8	19.3
외국인유학생	18.2	12.0	18.4	67.6	46.6	4.2	16.2

주: 2개 중복응답

자료: 설문조사에 의함

주자들에 비해 여가시간에 인터넷을 쉽게 이용하고 독서나 공부도 많이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실외 여가활동

여가시간에 외출할 경우 그 장소는 시장이나 대형마트(31.0%), 집 주변(25.8%), 시내의 도심(24.0%)이 대부분이었다(표 7). 종교단체 방문은 실내 여가활동과 마찬가지로 경기와 대구지역이 높게 나타났다. 경기와 대구지역은 이슬람 사원이 분포하는 곳이기도 하다.

실외 여가활동을 이주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결혼이주자는 시장이나 대형마트(43.0%), 집 주변(32.6%)이 높게 나타나 여성 결혼이주자의 특성이 여가활동에서도 그대로 나타났고 그 공간적 범위도 좁다. 다음은 결혼이주자의 외출 활동과 관련된 본 연구의 심층면담의 내용이다.

한국에 들어와서 작년까지 혼자 멀리 외출하지 못했어요. 고령은 몰라도 대구까지는 작년부터 아이를 데리고 혼자 나올 수 있어요. 그 전에는 어디를 가든 남편이 항상 함께 해줬어요. 혼자 나오면 복잡하기 때문에(예로 서부정류장까지는 버스가 있지만, 더 멀리까지 갈려면 지하철로 갈아타야하고...) 남편이 함께 할 때만 다니고, 남편이 일할 때 혼자 집에 있을 수 밖에 없었어요. 작년부터는 혼자 아이와 백화점도 가고 어린이 병원, 가톨릭 병원도 가곤 해요.(사례 1 - 중국, 여, 1965, 경북)

이렇게 결혼이주자의 여가제약은 심리적 위축과 부담감(내재적 요인), 여가 동반자의 제한(대인적 요인), 여가시간 및 경제력 부족(구조적 요인) 등으로 이해할 수 있다(권유홍·고봉찬, 2011). 다음으로 이주노동자는 집 주변(27.2%), 시장이나 대형마트(24.9%), 종교단체(24.0%)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실내 여가활동에서 종교 활동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듯이 실외 여가활동의 장소로도 역시 종교 단체의 방문이 다른 이주자 유형에 비해 상대적

표 7. 실외 여가활동 시 외출 장소

(단위: 명, %)

		합계	집 주변	시장이나 대형마트	시내 (도심)	지원기관 방문	종교 단체	기타	무응답
전체(명)		1,353	347	446	298	24	115	91	32
구성비(%)		100.0	25.8	31.0	24.0	1.7	8.4	6.7	2.4
유형	결혼이주자	393	32.6	43.0	8.1	2.8	4.1	7.6	1.8
	이주노동자	346	27.2	24.9	12.7	2.6	24.0	3.8	4.9
	전문직이주자	256	30.1	9.8	45.7	1.6	3.5	7.4	2.0
	외국인유학생	358	13.4	46.4	29.3	0.0	2.0	8.1	0.8
지역	서울	247	28.3	27.9	32.0	0.0	4.5	6.5	0.8
	경기	206	25.2	29.6	19.4	2.9	16.0	5.3	1.5
	대구	247	18.6	27.5	27.5	0.8	16.2	6.5	2.8
	경북	243	21.0	33.3	21.0	2.1	9.1	7.0	6.6
	광주	196	34.2	39.8	12.8	2.6	1.0	9.2	0.5
	전남	214	28.5	41.6	16.4	2.8	3.3	6.1	1.4

자료: 설문조사에 의함

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주노동자들은 주로 집 주변이나 친구 집을 방문하는 등의 소극적 여가활동을 하고 종교단체의 방문도 이어지는데, 이는 종교적 목적 외에도 이주노동자들의 ‘안전한 집결지’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설동훈, 2002). 종교단체는 이들의 사회적 지지망을 형성하는 공간으로 작용한다. 전문직 이주자들은 시내의 도심(45.7%)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집 주변(30.1%)이 그 다음을 차지하였으며 지원기관(1.6%)이나 종교단체(3.5%)의 방문은 적은 비중을 드러냈다. 이들을 지원해주는 지원기관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이들 또한 지원정책 등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시장이나 대형마트(46.4%), 시내의 도심(29.3%) 순으로 나타났고, 지원기관의 방문은 없었다. 특별한 지원기관 보다는 학교의 행정사항에 도움을 받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주자 유형별로 거주지역에서 여가공간의 이동을 살펴보면 결혼이주자의 경우 도심으로의 이동 비중이 높은 지역은 대구와 경북으로 나타나 대도시와 그 주변지역의 도심방문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주노동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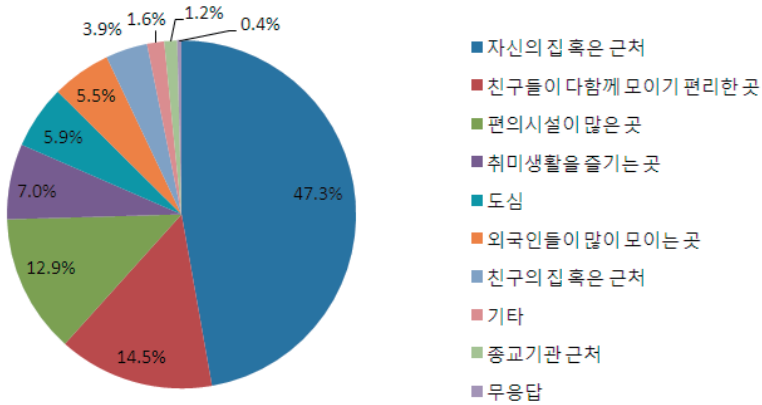


그림 5. 전문직 이주자들의 실외 여가활동 선호 장소

자료: 설문조사에 의한

는 대도시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도심방문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 반면, 전문직 이주자는 서울, 대구와 같은 대도시 지역일수록 여가시간에 도심으로 가는 경향이 있고, 경기나 경북지역과 같은 대도시 주변지역일수록 집 주변에서 주로 여가시간을 보내는 경향이 있다. 더불어 전문직 이주자들의 실외 여가활동 선호 장소를 추가적으로 질문한 결과, 자신의 집 혹은 근처(47.3%), 친구들이 모이기 편리한 곳(14.5%), 편의시설이 많은 곳(12.9%)을 선택했다(그림 5). 인도인, 특정활동(E-7)과 기업투자(D-8)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선호했다.

4) 타 지역 방문

(1) 방문 빈도와 방문 지역

여가시간에 타 지역을 방문하는 것은 비주기적 활동이며, 지리적 이동성을 파악하는 기준이 된다. 외국인 이주자들의 연 평균 타 지역 방문 빈도는 '2회 이하'(43.1%)나 '없음'(27.5%)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타 지역 방문이 없는 경우는 이주노동자가 가장 많았고, 나머지 이주자 유형은 2회 이하

표 8. 연 평균 타 지역 방문 빈도

(단위: 명, %)

		합계	없음	2회이하	3~5회	6~9회	10회이상	무응답
전체(명)		1,353	384	576	190	139	10	54
구성비(%)		100.0	27.5	43.1	14.2	10.7	0.6	3.8
유형	결혼이주자	393	29.3	41.5	13.0	9.4	2.3	4.6
	이주노동자	346	43.9	29.8	11.0	6.9	0.0	8.4
	전문직이주자	256	14.8	51.2	16.4	16.4	0.0	1.2
	외국인유학생	358	22.1	50.0	16.5	10.1	0.3	1.1
지역	서울	247	26.7	55.9	8.5	6.9	0.0	2.0
	경기	206	19.9	51.9	15.0	10.2	0.5	2.4
	대구	247	20.2	43.7	17.8	14.6	0.0	3.6
	경북	243	19.8	45.3	16.0	11.1	0.4	7.4
	광주	196	50.0	28.6	14.8	5.1	0.5	1.0
	전남	214	37.9	26.6	12.1	13.1	3.3	7.0

자료: 설문조사에 의함

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외국인 이주자들의 타 지역 방문 빈도는 대체로 많지 않음을 파악할 수 있다(표 8).

그리고 외국인 이주자들이 가장 많이 방문한 타 지역으로는 서울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대구, 부산의 순으로 나타나 대도시 지역으로의 방문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광주와 전남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이주자의 경우 타 지역으로의 방문이 없는 경우도 많이 나타나 원거리 지리적 이동이 적은 것으로 이해된다.

이주자 유형별로 분석해보면 결혼이주자는 대도시 주변지역일수록 타 지역 방문 빈도는 높게 나타나 대체로 주변지역에서 대도시로의 방문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가장 많이 방문한 타 지역으로 경기지역 거주자는 서울로, 경북지역 거주자는 대구로, 전남지역 거주자는 광주로 나타나 주변 대도시로의 이동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서울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자는 타 지역 방문이 없는 경우(40.0%)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주노동자는 경북지역 거주자의 경우 6~9회 방문했다는 응답이 타 지역보다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고, 필리핀인이 많은 이동을 보였으며 비자유형별로는 비전문취업(E-9)¹¹이 많은 이동이 있었다.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보다 많은 이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노동자도 역시 주변지역에서 대도시로 방문하는 경우가 두드러졌다. 하지만 광주와 전남지역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는 타 지역 방문이 없는 경우가 각각 93.3%, 76.6%로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이 지역 거주자들은 여가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했고, 생필품 구매 빈도수에도 나타나듯이 공간적 이동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대신 전화 등의 이용으로 연계를 구축할 것으로 예측된다. 전문직 이주자의 경우 대구와 경북지역에 거주하는 이주자들이 상대적으로 타 지역 방문 횟수가 많이 나타났고, 비자유형별로는 무역경영(D-9)이나 회화지도(E-2)가 그러했다. 가장 많이 방문한 타 지역은 서울, 부산, 경기지역의 순으로 나타났고, 서울은 경기도, 경기도는 서울, 대구는 서울과 부산, 경북은 대구, 광주와 전남은 서울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나 대체로 인근 대도시 지역으로의 방문과 더불어 수도권 서울의 방문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외국인 유학생도 전문직 이주자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고, 역시 모든 이주자 유형에서 광주와 전남 거주자는 타 지역 방문이 없다는 응답이 많았다.

표 9. 타 지역 방문 목적

(단위: 명, %)

	합계	가족, 친구 방문	본국사람들과 모임	여행 및 관광	종교 활동	업무 관련	기타	무응답
전체(명)	1,353	310	109	302	51	48	66	467
구성비(%)	100.0	22.6	8.3	22.9	3.7	4.2	4.9	33.4
결혼이주자	393	32.3	5.6	14.0	2.3	2.3	5.3	38.2
이주노동자	346	20.2	10.1	4.0	9.5	0.3	2.0	53.8
전문직이주자	256	21.5	10.5	30.1	2.0	12.9	5.9	17.2
외국인유학생	358	16.2	7.0	43.6	1.1	1.4	6.4	24.3

자료: 설문조사에 의함

1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 자[일정 자격이나 경력 등이 필요한 전문직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제외] <신설 2003.9.1>

(2) 방문 목적

외국인 이주자들이 타 지역을 방문하는 목적은 여행 및 관광(22.9%), 가족이나 친구 방문(22.6%)이 높게 나타났다(표 9).

결혼이주자는 가족이나 친구 방문(32.3%)이 가장 많았고, 특히 일본출신의 결혼이주자의 경우 종교 활동을 위해 타 지역을 방문하는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들만의 소규모 종교모임이 있을 것이라 예측된다. 다음은 결혼이주자가 여행 및 관광의 목적으로 타 지역을 방문한 경험을 심층면담 한 내용이다.

계절별로 한 번 정도 안산에서 벗어나 외출을 해요. 주로 남편과 여행을 하며, 여가를 위해 친구들과 동행하기도 해요. 지난 여름에는 강원도 주문진을 갔었는데 참 좋았어요. 한 번 가본 곳은 어렵지 않으며 처음 가는 곳은 상징성 있는 기표나 랜드마크를 기점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사례 2 - 캄보디아, 여 1962년생, 안산)

이주노동자도 가족이나 친구 방문(20.2%)의 목적이 가장 높았지만 본국 사람들과 모임(10.1%)이나 종교 활동(9.5%)으로 인해 타 지역을 방문하는 횟수도 많았다. 필리핀과 중국인은 가족이나 친구 방문, 스리랑카인은 본국 사람들과 모임이 주 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구와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는 다른 지역 거주자에 비해 종교 활동의 목적으로 타 지역을 방문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대체로 체류기간이 길수록 본국 사람들과의 모임을 위한 방문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전문직 이주자의 경우 여행 및 관광(30.1%)의 목적이 가장 높았고, 일본이나 중국인은 본국 사람들과의 모임의 목적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다음은 전문직 이주자들의 타 지역 방문과 관련된 심층면담 내용이다. 대체로 다른 이주자 유형에 비해 이동거리도 길고 자유롭게 이동하며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타 지역은 서울, 부산, 포항, 광주 등을 여행 했었어요. 친구들과 여행의 목적이었고 친구의 차를 타고 가거나 KTX를 타고 갔었는데 근무시간 때문에 이동 시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군인 친구가 있어서 5개월 전에 휴전선 근처에 가본 경험이 있어요. 금강산에도 갔는데 인상 깊었고 북한담배도 사왔어요.(사례 3 - 필리핀, 남 1975년생, 대구, 예술홍행(E-6))

서울, 부산, 안동 등을 가보았는데 경주에도 가보고 싶어요. 한국에 와서 외국인 친구들과 여행의 목적으로 여러 지역을 돌아다녔으며, 부산에서 배를 타고 후쿠오카를 간 적도 있어요. 외출 시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고 한국의 교통체계는 잘 되어있는 것 같아요.(사례 4 - 미국, 여 1979년생, 대구, 회화지도(E-2))

해인사(합천), 포항, 서울 등 여러 곳을 가보았는데 형의 가족들과 함께 승용차를 타고 갔어요. 외출 시 큰 어려움은 없고 도로 상황도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외모 때문에 편견을 느끼기도 하는데, 이슬람 사람이고 수염을 기르고 후진국이라는 이미지 등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은 편견을 가져요. 또 가끔씩 택시를 타면 바가지 요금을 낼 때가 있는데 한국말을 잘 못해서 3천원 정도의 거리를 1만 5천원을 주고 간 경우도 있어요. 어느 지역을 가든지 외국인에 대한 편견은 똑같다고 생각하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특별히 편견이 더하거나 덜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사례 5 - 파키스탄, 남 1985년생, 대구, 기업투자(D-8))

마지막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다른 이주자 유형보다 여행 및 관광(43.6%)의 목적이 더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한국문화 배우기와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많은 대학교에서는 한국 문화를 교육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관광을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또한 여가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어머니가 한국으로 오셨을 때 같이 겨울연가의 무대를 보러 강원도에 갔었어요. 그런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열차를 예약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외국인 등록증으로 가입을 할 수 있었지만(가끔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결제를 할 때 신용카드로 하려고 하니 해외에서 발행한 카드는 안되고(그리고 기본적으로 외국인 학생들은 신용카드를 만들 수 없다. 아무리 32살이 되었고, 본국에서 갖고 있었어도 안 된다. 얼마나 불편한 것인가…), 휴대폰으로 하려고 해도 명의가 친구 것이니까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하고, mobile banking도 등록을 그때 안 했으니까 결국에 결제를 못했어요. 그래서 직접 전화를 했는데 너무 불편했어요.(사례 6 - 일본, 여 1976년생, 서울, 박사과정)

지역을 벗어나 다른 지역을 간 적은 학과 답사로 안동에 선생님과 학생들과 같이 갔어요. 여행을 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시간관념이 다르다는 점이에요. 8시에 출발한다고 했는데 7시 50분에 도착하고 한 시간 정도 기다려서 9시 넘어서 출발해요.(사례 7 - 중국, 남 1982년생, 서울, 박사과정)

정리하면 결혼이주자와 이주노동자는 가족이나 친구 방문이, 전문직 이주자와 외국인 유학생은 여행 및 관광이 타 지역 방문의 주목적인 것으로 나타나 이주자 유형별로도 두 가지 양상으로 구분된다. 결국 결혼이주자와 이주노동자는 여가시간도 부족하고 여가활동도 제한적인 반면, 전문직 이주자와 외국인 유학생은 여가시간이나 여가활동에 제약을 덜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지리적 이동 및 지식이 더 확장된 결과로 나타나고, 한국 사회 적응과정 및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이 더 활발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삶의 정체성도 확고해질 수 있다.

6. 결론

우리 주변에서 외국인을 만나는 것이 어색하지 않을 만큼 외국인 이주자

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주자 유형과 관계없이 외국인 이주자의 증가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생활공간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외국인 이주자를 결혼이주자, 이주노동자, 전문직 이주자, 외국인 유학생으로 구분하여 이들이 만들어 내는 일상적이고 구체적 공간인 생활공간을 주거공간·소비공간·여가공간으로 분리하여 이해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 이주자들의 주거공간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었다. 주거지의 주변환경은 가장 만족도가 높았으며, 주거공간 내부의 규모나 쾌적성 측면에서는 만족도가 낮았다. 따라서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외부적 요인보다는 내부적 요인이 크다고 판단된다. 결혼이주자를 제외한 외국인 이주자들은 직장(또는 학교)에서 주거지를 제공받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초기 정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주거지 선정 기준은 거리적 요인, 주거 비용, 주변 환경, 사회적 관계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주자 유형별로 그 기준의 차이는 발생한다. 직주 간 소요시간이나 월 평균 주거비는 전문직 이주자가 가장 많았다. 입국연도가 길어질수록 본인이 마련한 주택에서 주거하는 비중이 높고 주거지 이전 횟수도 증가하는데, 이들은 생활공간에서의 적응이 수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소비공간의 특징으로 전문직 이주자,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 거주자, 선진국에서 이주한 외국인들이 월 평균 생활비 지출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생필품 구매 장소를 통해 소비공간의 범위를 파악하였는데 결혼이주자와 이주노동자는 이동거리가 짧으며, 전문직 이주자와 외국인 유학생은 그 거리가 길다. 그리고 광주와 전남지역 거주자일수록 소비공간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으로 보아, 거주목적이나 거주지역에 따라 소비공간의 차이점이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외국인 이주자들은 대체로 한국에서 본국물건을 구매한 경험이 있고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도가 그러했지만, 광주는 그 비중이 낮았다. 본국물건을 구매하는 장소까지 소요시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각 지역마다 가까운 곳에 에스닉 상점이 분포하고 있으리라 여겨진다.

이는 대도시에 보다 집중해 있으며 중국이나 일본 물건은 구매가 쉬운 것으로 나타나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한 결과로 해석된다.

셋째, 여가공간과 관련하여 결혼이주자나 이주노동자는 상대적으로 여가시간이 적으며 전문직 이주자나 외국인 유학생은 그 시간이 많다. 여가활동이 실내에서 이루어질 경우 인터넷과 TV시청의 비중이 높으며 이러한 매체는 간접접촉을 통해 적응하고 정착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영향력 있는 도구이다. 실외 활동의 경우 마트, 집 주변, 도심 등에서 이루어지는데 각종 여가계약으로 인해 소극적 여가활동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타 지역 방문은 연평균 2회 이하로 나타나며, 주변 대도시 지역과 수도권 서울로의 방문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결혼이주자와 이주노동자는 가족이나 친구 방문이, 전문직 이주자와 외국인 유학생은 여행 및 관광이 타 지역 방문의 주 목적인 것으로 나타나 이주자 유형별로도 두 가지 양상으로 구분된다. 결국 결혼이주자와 이주노동자는 여가시간도 부족하고 여가활동도 제한적인 반면, 전문직 이주자와 외국인 유학생은 여가시간이나 여가활동에 제약을 덜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지리적 지식도 더 확장된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는 외국인 이주자를 여러 유형별로 분리하고, 생활공간을 구체적으로 주거공간, 소비공간, 여가공간으로 구분하여 지역별로 동일한 설문내용을 조사·비교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연구결과를 통해 외국인 이주자의 생활공간에 대한 연구가 이들의 삶의 모습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외국인 이주자들의 지속적인 증가는 구체적 생활공간에서 지금보다 더욱 뚜렷한 특징을 나타낼 것이므로 보다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민조, 2003, 서울시 외국인 거주에 관한 공간 분석, 건국대학교 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 국가인권위원회, 2002, 국내 거주 외국인노동자 인권실태조사.
- 권기현·이흥재, 2005, 외국인 과학기술 고급인력 국내 유치, 활용을 위한 정책대안의 분석 및 평가: 주거, 자녀교육, 의료지원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4(2), 79-108.
- 권유홍·고봉찬, 2011, 결혼이민여성의 여가제약과 발생원인 고찰, 관광연구논총, 23(1), 27-48.
- 김남희·한유경·한용진·김현진, 2004, 국내에서 해외 고급인적자원의 활용 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연구보고서.
- 김영미, 2012, 다문화가정의 주거만족도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현주, 2006, 국내 거주 외국인 소비생활실태, 한국소비자보호원.
- 김호철·김주진, 1997, 서울시 거주 외국인의 주거실태와 그 특성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개발연구, 22(1), 345-362.
- 류주현, 2009, 수도권 외국인 노동자의 직주거리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2(1), 77-90.
- 리통, 2010,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적응 실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적응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 문은희, 2007,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과 여가참여에 관한 연구: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여가경영학과 석사학위논문.
- 박배균, 2010, 외국인 국내 적응의 지역적 차이에 대한 연구: 전문직 종사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3(1), 89-110.
- 배경호, 2008, 주한 중국인 유학생들의 여가참여유형 및 참여정도에 따른 여가만족도와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체육교육 석사학위논문.
- 백정숙·이계희, 2006, 이주 노동자의 여가제약요인과 여가행태, 관광·레저연구, 18(2), 243-259.
- 손승호, 2008, 서울시 외국인 이주자의 분포 변화와 주거지분화,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1(1), 19-30.
- 설동훈, 2002,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대학교출판부.
- 심송희·최윤경, 2005, 정보화 사회의 소비공간 연구, 대한건축학회 창립60주년기념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5(1), 199-202.
- 안선민·장상욱·신경주, 2006, 외국인 유학생의 주거계획을 위한 연구: 주거유형별 주거

- 만족, 선호 및 요구를 중심으로, 한국생활환경학회지, 13(1), 31-44.
- 오아름·유현정, 2009, 민속지학적 접근을 통해 본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소비생활, 소비자정책교육연구, 5(1), 49-68.
- 이주연·김혜숙·신희천·최진아, 2011,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 여가생활 변화 인식과 삶의 만족감에 대한 연구,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5(4), 83-97.
- 이지춘, 2012, 다문화가정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호승, 2008, 외국인 취업자의 여가활동 참여와 직무만족 및 대인관계, 울산대학교 체육교육 석사학위논문.
- 장미진·김규원·설동훈·송윤창·이지연, 2002, 외국인연예인 국내취업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 한국문화정책개발원.
- 중소기업중앙회, 2009, 외국인근로자 숙식비 산정기준 연구용역 결과.
- 차성란, 2011, 결혼이주여성 관점에서의 다문화가정 여가생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5(1), 51-70.
- 최병두, 2009, 한국 이주노동자의 일터와 일상생활의 공간적 특성,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2(4), 319-343.
- 최병두·임석희·안영진·박배균, 2011, 지구·지방화와 다문화 공간, 푸른길.
- 하성규·고성열, 2006,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실태에 관한 연구, 대한부동산학회, 24.
- 한기수, 2011, 외국인 밀집지역의 사례연구를 통한 주거환경 선호요인분석: 글로벌 빌리지 6곳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도시계획학과 석사학위논문.
- 허문경·권유희, 2010, 외국인 유학생의 여가행태에 대한 탐색적 연구: 문화간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34(1), 135-154.

A Study on the Foreign Immigrants' Life Space: Focusing on the Factors of Dwelling Space, Consumption Space, and Leisure Space

Hye-Kyung Lee*

Abstract As globalization progresses and transnational immigration is vigorously made, the number of foreign immigrants is sharply increasing. Subsequently, multi-cultural studies on foreign immigrants are made but they are focusing on somewhat individual adaptation process or policies for marriage immigrants or immigrant workers. In order to figure out closely their adaptation process in Korea, studies on the social and institutional aspect are important but there is also a necessity to study on the concrete space where their daily activities are actually made, in other words, a life space.

Hence, this study investigated, as a means to figure out their adaptation process of the foreign immigrants in Korea, on the concrete life space which is a dwelling space, consumption space and leisure space where their daily activities are made. In addition, for the analysis of each sub-element, foreign immigrants were classified into 4 types; marriage immigrant, immigrant worker, foreign professional worker and foreign students. Based on this, this study intended to understand the foreign immigrants' adaptation process to the local community and the characteristics that they have in the aspect of concrete space as a 'foreign immigrants' group, a minor group in our society.

Keywords foreign immigrants, life space, dwelling space, consumption space, leisure space

* Teacher Intern of Sungji Girls Middle School, Geography, time46@hanmail.net